

建築探究의 姿勢

李 甲 造

(京畿大學 建築工學科 教授)

1. 序論

『What is Architecture?』하는 질문은 통상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강의실에서提起되는 문제이긴 하나 오랜기간 건축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때의 기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상상된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자유스러운 건축교육을 이수하였으나 現實的인 업무속에서 이런 교육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분업화된 사회구조속에서 맡겨진 적산이든지, 또는 구조든지, 음향이든지, 설비든지하는 특정부분의 문제해결에도 끊임없이 시달리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哲學的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성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창작이라는 대의 명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rchitectural activity는 크게는 건축행정조직 설계회사로부터 적게는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아파트업자, 집장사에 이르기 까지 방대하고 다방면한 조직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他 사회현상과도 마찬가지로 건축현상도 여러가지의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건축활동이나 건축가像도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오늘날은 우선 일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고도의 두뇌를 요구하며 규모가 방대하고 선진기술이 월등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은 많은데 이에 더불어 변화속도가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차제에 감히 오늘날의 문제 성격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건축방향과 건축인으로써의 탐구자세등을 가다듬어 보고져 한다.

너무 멀리 잡은 目標은 實現이 불가능해 질 수 있지만 너무나 短見도 역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켜 일을 악순환속에 머물도록 한다.

어떤 정도의 目標이던지 간에 本人이 어떠한 전문분야에 관계되든지 좀더 높은 次元에서 일치되는 建築의 方向과 探究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展開하려고 하는 글의 內容이 理論에만 강한 것이 될지라

도 오히려 현시점에서라면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建築의 機能

有史 이래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터득된 경험들은 建築을 美的, 構造的, 機能的인 3 요소속에서 찾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건축은 個別的으로 위 3 요소보다는 美的, 構造的인 主안점에서 각 시대의 style 위주로 전개되었고 근대 산업혁명 이후 人本主義에 입각한 기능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며 19C의 master builder에 의해서 이러한 3 Category에 입각한 현대건축의 方向도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형 및 의장상 또는 構造工法상 건축의 획기적인 변화도 이룩되었다.

機能에 관련해서 한 동안 Greenough의 말을 인용한 Louis Sullivan의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말은 각국의 건축학도에게 appeal한 말이 되었고 초기의 선각자들을 模倣하는 건축물이 세계 각국에 앞을 다투어 들어섰다.

Client로부터 주문받은 업무를 고쳐어린 궁리끝에 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과 사람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러한 중대한 임무가 강조된 나머지 Client로부터 project가 시작되나 그의 잔소리는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 둘 사이에는 아이로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어왔다.

그러나 점차로 社會 自体가 그러하듯이 分業化 專門化의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건축가와 Client의 관계는 건축 조직과 社會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그 상호작용도 과거와는 달리 넓은 면에서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建築人은 작으나마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양도 받아 건축창작인으로써의 역할도 이러한 전반적인 건축차 社會의 작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하나의 條件에 대한 각 Art architect의 창작적 解決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個別的인 解決에는 全體的인 統制와 均衡의 觀點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理由에서 건축창작은 여러가지 형태로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준비가 充分히 갖추어져 있지못한 건축인

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선 건축물이 대형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분야가 방대해 졌으며 Computer의 등장으로 여러가지 routine한 작업을 정확하게 짧은 기간동안에 代行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次元높은 탐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작업의 방대성은 1大家의 머리로써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각 분야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또 이 결과도 여러단계의 總括的인 觀點에 입각한 통제와 수정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한 project가 주는 Social impact가 Art architect 혼자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는 狀況에 이르렀다.

따라서 最近 外國에서는 Architectural activity를 『사회학상의 한 現象』으로 다루는 方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社会学分野에서는 건축이란 the shaping of mans habit이며 habit란 人間이 사는 environment로써 空間이 바뀌면 人間の 性格이나 行動도 변하고 이러한 변화된 way of living은 form of the house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간에 mirror and mould one another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즉 fabric of house (Architecture)와 character of family organization (institution)은 Society를 이루고 人間과 사회조직 및 환경은 상호 integrating system을 이룬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건축인이 芸術性이나 style에만 치중하여 노력해 온 나머지 그 결과가 증명해 주듯이 現代社會의 非人間化현상도 말로는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Form and space is not Architecture. Architecture occurs only when there is person to Experience it』라고는 이러한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다.

건축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과학쪽의 할일이 많긴 하지만 과학적 활동은 아니다. 또 건축가는 technologist도 아니다.

건축작품의 실현은 社會의 공동적인 승인의 배경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他 藝術品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layman은 Architectural work에는 관심이 있지만 Architectural idea나 thought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건축가는 어떻게 가용한 능력과 社會의 이해로써 human need를 充足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 關連하여 한 個人의 mannerism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회를 담는 용기』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공동노력에 의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디자인과 建築環境

현실적으로 어떤 분야의 位置를 알려면 좀 멀찌기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

건축가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줄이거나 늘려서도 안되며 결점을 수증하고 전체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축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장사의 집은 건축의 영역에서 除外될 수는 없는 것이다. Art Architect가 조그만 양화점의 decorative fashion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집장수들은 이미 전체 시가지를 조잡한 건물들로 꽉 채워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몇몇 건축사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大衆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方向으로 이끄는 노력을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대중사회에서 암만 올바른 것도 호응 내지 동조하는 세력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히 건축의 social impact는 직접적이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또한 건축에 관련된 技術人이나 Designer는 활동의 제약이나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자체의 이론적인 배경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理論은 經驗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긴 하나 이것이 記錄과 分類의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며 건축수업이 技術로서 Apprentice ship에 의해 체험적으로 터득되어 왔고 항상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理論的인 確立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점차로 他 分野보다도 더욱 방대한 영역이 統合되는 곳으로서 이들의 control이나 Coordination에 관한 methodology나 thought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toudig technique나 Rendering 技法, Drawing솜씨 등 숙달을 요하는 면도 중요하나 이러한 기술의 mannerism이 아닌 각종 가용한 科學, 工學기술의 이해, 등 이러한 것들을 구사하여 건축의 方向을 찾아가는 次元높은 건축철학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40년대 인류의 지식을 1cm에 비유할 때 1960년대의 지식은 5cm에 해당한다는 말은 건축적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技術과 能力을 구사하기 위한 哲學的 배경은 또한 따라서 원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건축이 한 건축물의 美術的인 解決을 벗어나서 社會의 한 현상으로서 파악되고 건축가들은 社會科學, 自然科學, 藝術哲學으로부터 유도되는 思想의 patten을 형상화하고 이것을 具體的으로 엮는 form giver로서 겸손한 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人間事에서 실수없는 발전이란 물론

있을 수 없으나 자신이 가지는 見解를 진리라고 생각할 때 자만이 시작되며 발전이 정지되는 것 같다.

여러 도시의 경우 이러한 연유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個人건축가에 의한 建築作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수정하고 方向을 잡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建築士들에게는 建築人의 個性과 創作活動을 막는 관청의 횡포라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本人은 이것은 현상에서 건축의 전반적인 통제와 조정을 기하는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個性을 표방하는 크고 작은 설계작품들이 중구난방式으로 얼룩덜룩 도시를 뒤덮을 때 각 건축작가의 창작의욕과 도취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들은 중요한 피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design환경은개인보다는teamwork으로 단일건물보다는 전체 도시적 Community적인 관점에서 함께 調和될 수 있는 方向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축에 연관된 모든 사회조직은 높은 次元의 協助와 方向추구가 共感되는 方向으로의 努力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4. 韓國建築의 課題

오늘날 우리나라의 建築的 現實은 오랜 東洋的 建築思想에 의한 建築活動이 이미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고적과 유물이 되어 버리고 짧은 기간동안의 西歐건축의 탐욕스러운 도입은 西洋精神을 充分히 理解하고 우리의 기존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보태어 지는 方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建築活動이 당대의 国力이나 都力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日人에 의해 도입된 서양식 건축이 순조로운 정착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잃은 채로 8.15와6.25 동란등의 격변으로 엄청난 수요를 단 시일내에 채워야 했기 때문에 역시 정상적인 발전이 어려웠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만 했을때는 근본적으로 건축사 자격고시 자체에서부터 많은 시비와 모순을 안고 창작업무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던 중 5.16이후 우리 주변에 대형화된 건축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비로써 “건축”이라는 title을 붙일만한 건물이 점차로 늘어가게 되면서 한국건축의 傳統에 관한 논란도 한때 심심찮게 논의되었고 강남일대의 개발로 부동산투기, 아파트프리미엄사건,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사업, 해외건설경기로 인한 국내 건설노임폭등, 일반 건설회사의 기술축적등 업치락 뒤치락 혼란과 非理의 틈바구니속을 비집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건축을 논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작품도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 몇년전 부터는 건축가 협회나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뒤늦었지만 “건축의 人間化”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달리며 터득되어 온 기성 건축인의 경험도 중요하나 이미 체계적인 탐구의 과정을 충분히 밟아 온 것이 아니고 또한 탐구의 노력이 한 세대에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를 가능케 하는 social institution의 정비와 일반대중에 대한 건축의 인식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건축인의 손에 의해 모든 건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직공무원이 일시에 대량으로 처벌을 받거나 건축사가 수시로 회생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대우가 건축인들에게 가혹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나 동기가 건축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올수도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창작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사협회와 건축위원회의 대학교수에 대한 반감, 대학교수의 창작가담의 반대등 대학인에 대한 경원도 올바른 건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올바른 건축풍토의 사상적인 형성은 대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84개 대학중 건축과가 있는 학교가 36개교이며(이중 17개교는 서울 경기 일원에 소재함) 1년에 졸업하는 학생수는 3,070명이나 된다. 방대한 건축의 과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반건축풍토의 개선과 더불어 건축학도의 꾸준하고 바른 건축탐구의 방향을 마련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로 대학건축교육에 주안점을 두고(일반건축 탐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의 체계적인 탐구의 자세나 방법에 관해 장을 바꾸어 기술해 보겠다.

5. 建築의 探究姿勢

건축의 탐구는 이미 시작한지가 오래이지만 다양하고 방대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다양하고 상반된 지식들 속에서 자신이 소화하고 이러한 方向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ploring Architecture에 필요한 two linked process를 duplication과 discovery로 区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대개 duplication은 주로 기본학습에서 강조가 되는 방법이고 discovery는 고급학습에서 강조가 되는 것인데, 전자는 process보다 product of learning을 강조하고 후자는 underlying principle을 강조한다. 많은 learning situation에서 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들이 상호 연관성이 없이 fragmental한 상태에 있을 때 이들

duplicated knowledge는 쓸기없이 잘라낸 가지더미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비록 작더라도 相互연계를 가지고 뿌리와 줄기를 가져 骨格을 형성했을때 이것을 바탕으로 discovery의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건축도 duplicated fact와 knowledge를 근거로 하여 理論이 형성되나 이것의 의의는 근본적으로 continual voyage of discovery에 있고, 또한 대학기간으로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크고 작은 건축에 관련된 지식들은 또는 他人의 비판등은 자신의 努力에 方向을 잡아주는 지도나 이정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Voyage는 건축학도 자신의 것이고 이러한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낸 方法이 바로 個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frame-work는 건축가로서의 성격과 장래를 결정하는 근간을 이룰 것이다.

독단적인 조연자의 강요나 강제적이고 과중한 과업의 강요로 인한 획일화는 좋은 方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他 分野와는 달리 Career development를 요하기 때문에 장래 건축에 대한 方向이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건축학도가 가지는 個性과 素質을 최대한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方向이 되어야 한다.

Voyage of architectural discovery를 수행하는 좋은 方法의 하나가 우선 현존하는 많은 human institution 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한 institution의 현재기능, 목적 또다른 institution과의 관련성, 더 큰 효과를 위해 필요한 기능, human efficiency를 위해 요구되는 환경특성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축의 시도는 바로 社会 文化 物理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의 性格을 벗기는 수단이기도 하며 이러한 real-life situation의 연구과정에서 architectural investigation과 decision-taking에 관련된 많은 자료와 지식을 얻게 된다. 여기서 얻어지는 Factual information, Technical and intellectual skills, Social contact skills, personal understanding들이

점차로 쌓임에 따라 좀더 높은 차원의 Architectural decision taking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건축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아래의 3가지로 요약되는 임무를 가질 것이다.

즉 첫째로 인간의 개체적, 사회 공간 환경적 need를 이해함으로써 human institution을 이해하고

둘째로 이러한 need에 대한 technological Capacity를 인식,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세째로 Creative response로 이need에 대한 성격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로 건축은 다만 美, 構造, 機能의 3대 category만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일반사회와 한 현상으로써 이해되어야 하고 사회와 더불어 integrating system을 이루어 상호 mirror and mould one another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건물의 해결 못지 않게 Overall한 View point를 갖는 거시적인 취급의 중요성을 느끼며

둘째로 이러한 이유로 total cooperative effort의 중요성과 multi disciplinary한 team work가 강조되며

세째로 이 모든 architectural activity가 human need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게 superimpersonalizing하지 않고 인간의 생리적 육체적으로 적합한 척도체계를 가져야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축의 탐구는 실수없이 얻어질 수는 없으나 duplicated fact and knowledge를 바탕으로 하는 continual voyage of discovery 즉 평생을 통한 common search for apt solution에 의해서 성숙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본인의 각오이기도 한 이 글이 공감되고 건축을 추구하는 동, 후학에게 자세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新刊書籍紹介

太 陽 熱 暖 房 設 計

訳編者 車宗熙 柳濟仁 金恩一

發行人 柳濟東 發行所 教文社

서울 중로구 당주동 15-3 TEL 724-0500, 725-1522